

〈번역논문〉

동아시아에서 신라 삼국통일의 의미*

정 병 준 **

〈목차〉

- I. 중대 신라왕권의 성격
- II. 유민의 流動化와 재편성

I. 중대 신라왕권의 성격

이 책에서 신라·당 관계와 백제·고구려 유민의 존재양상에 대해 검토해 왔다. 서장에서 언급하였듯이 나당전쟁 및 유민의 실태를 밝히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사료가 매우 부족하였다. 이 책에서는 唐人 郭行節 및 유민들의 墓誌를 활용하여 그 부족함을 극복하려고 시도하며 7세기 후반부터 8세기 전반의 신라·당 관계와 백제·고구려 유민의 동향을 새롭게 해명하였다. 동시에 『삼국사기』의 사료적 가치에 대해서도 문무왕 15년(675)·16년(676) 조를 중심으로 재확인하고 종래의 이해¹⁾에 재고의 여지

* 이 글은 植田喜兵成智, 『新羅·唐關係と百濟·高句麗遺民 -古代東アジア國際關係の變化と再編』, 山川出版社, 2022의 終章 「東アジアにおける新羅の三國統一の意味」를 번역한 것이다.

** 동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가 있다는 지적을 하였다. 이 종장에서는 이 책의 결론으로서 신라의 국가 통합 즉 신라 삼국통일의 의미를 동아시아사의 관점에서 정리해 보겠다.

먼저 당의 입장에서 백제·고구려 유민은 어떠한 존재였을까. 당의 영역 안에는 많은 백제·고구려 유민이 존재하였다. 재당 백제 유민은 종래에 扶餘隆과 黑齒常之의 활동이 알려져 있었는데, 묘지에 의해 禰軍을 비롯한 그 외 백제 유민도 武官으로 활약하여 당의 군사활동에 공헌한 것이 밝혀졌다. 백제 유민의 활동이라고 하면 당에 반항한 부흥운동 및 왜(일본)와 연합한 백촌강 전투 등은 알려져 있지만, 이 책에서 당에 종속되어 8세기 초기까지 활동한 유민의 모습을 새롭게 밝혔다.

고구려 유민도 마찬가지로 말할 수 있다. 고구려 유민도 安勝과 鉗牟峯 등 당에 반항한 자가 있었던 한편으로 당에 종속된 자도 많았다. 지금까지 泉男生과 고선지 등의 영세한 사료로부터 단편적으로 알려져 있던 재당 고구려 유민의 군사활동을 묘지 사료를 바탕으로 밝힐 수 있었다. 특히 고구려 유민의 將兵은 거란·돌궐·토번 등의 전선에 투입되었고 7세기 후반부터 8세기 초에 걸쳐 당의 군사력을 지탱하였다. 근년의 唐代史 연구에서는 돌궐인과 소그드인의 군사력에 의한 공헌이 주목되었지만, 백제·고구려 유민도 그 일익을 담당한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들 유민이 당의 대외전쟁에 공헌할 수 있을 정도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당이 熊津都督府와 安東都護府에 백제·고구려 유민을 기용한 것은 신라에 대한 견제가 되었다. 또 백제·고구려의 옛 왕족이 현종 개원 연간의 泰山封禪에 참가한 사실은 8세기 전반까지 유민이 당의 입장에서 그 전략상 중요한 위치에 있었음을 나타냄과 동시에 그 무렵까지 신라에 대한 경계를 유지하였던 것을 의미한다.

1) 池内宏, 「高句麗滅亡後の遺民の叛亂及び唐と新羅との關係」, 『滿鮮史研究』 上世 第2冊, 吉川弘文館, 1960(初出 1930); 존 재미슨, 「羅唐同盟의 瓦解 - 韓中記事聚畝의 比較」, 『역사학보』 44, 1969.

이는 675년 신라가 당에 謝罪使를 파견하고 당으로부터 다시 책봉되면서 나당전쟁이 종결되고 양자 관계가 개선되었다고 보는 이해²⁾와는 차이가 있다. 당은 서역의 토번과 북방의 돌궐에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어서 재차 군사원정을 단행하지 못했다고 해도 동방의 신라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는 않았던 것이다.³⁾

다음으로 신라의 입장에서 백제·고구려 유민은 어떠한 존재였는가. 신라는 고구려 유민의 반당활동을 지원하며 백제 고지를 병합하였다. 또 고구려 왕족인 안승을 옹립하여 백제 고지인 金馬渚에 안치하고 그를 고구려왕으로 책봉하였다. 그 외에도 백제·고구려 유민에 대한 통합정책이 문무왕·신문왕 시기에 행해졌다. 얼핏 보면 유민의 통합이 순조롭게 진행된 듯이 보인다. 하지만 재당 유민의 분석을 통해 당 측에 선 유민도 많았고 당이 그러한 친당 유민을 신라에 대한 견제로 이용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신라 입장에서 유민은 당에 내통할 수 있는 잠재적 위협이기도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신라는 유민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고 나아가 유민의 이반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당보다 우위 혹은 적어도 당과 동등하게 맞설 수 있는 존재가 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나당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한반도에서 신라가 우위에 있다는 것을 유민들에게 보여 신라의 유민통합에 유리하게 작용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군사적 측면이 아닌 권위적 측면에 있어서는 안승을 고구려왕에 책봉한 것이야말로 백제·고구려의 고지와 유민을 통합하고 동시에 당에 대항할 수 있는 신라 왕권의 힘을 나타내는 정

-
- 2) 西嶋定生, 「東アジア世界と冊封體制 一六~八世紀の東アジア」, 李成市 編, 『古代東アジア世界と日本』, 岩波書店, 2000, 初出은 1962(니시지마 사다오 저, 송완범 역, 『일본의 고대사 인식 - '동아시아세계론'과 일본』, 역사비평사, 2008).
- 3) 西域情勢와 관련시킨 견해는 古畑徹, 「七世紀末から八世紀初にかけての新羅・唐關係」, 『朝鮮學報』 107, 1983(同, 『渤海國と東アジア』, 汲古書院, 2021 再録); 서영교, 『나당전쟁사연구』, 아세아문화사, 2006; 노태돈, 『삼국통일전쟁사』, 서울대학출판부, 2009.

책이었다고 생각된다. 신라에 의한 유민의 통합은 결코 쉽게 진전된 것이 아니었다. 즉 신라에 반발한 유민도 있었고 나아가 당까지 의식하면서 유민을 통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려운 과제였다.

신라는 그와 같이 유민의 통합을 추진하면서 아울러 유민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된 대당정책에 대해서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 고구려 멸망 후 신라는 당과 대립하여 나당전쟁이 발발하였다. 지금까지 논한 대로 전쟁 후에도 양국의 긴장관계가 지속되었고 675년 신라의 사죄와 再책 봉으로 화해가 성립된 것은 아니었다. 신라와 당은 서로 자신의 영역에 백제·고구려 유민을 안고 있고 분쟁의 불씨는 계속 남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신라는 당의 위협을 무시할 수 없어 당과의 관계를 개선하면서 유민 통합을 이루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신문왕대에 국내 집권정책이 다음 단계로 진입하자 당에 대한 대항의 상징이기도 했던 안승의 고구려국을 683년 폐지하였다. 안승의 고구려국 폐지는 그것이 단순한 당과의 타협의 결과라고 한다면 왕 권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또 당에 대항할 수 있는 존재로 유민의 통합을 추진하던 신라 왕에게 있어서는 그 권위를 손상하는 일이 된다. 그래서 안승을 신라 국내 질서인 골품제에 편입시킴으로써 신라가 고구려보다 상위에 있다는 권위를 유지하면서 당과의 분쟁 안전을 교묘하게 처리한 것이다. 종래에 안승 고구려국의 역할에 대해서는 신라의 대일외교라는 측면에서 다루어져 왔지만, 이 책에서 새롭게 당과의 관계를 무시해서는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혔다.

안승의 고구려국 폐지 이후 신라와 당은 화해할 조건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양국의 긴장은 쉽게 해소되지 않았다. 실제로 신라는 백제·고구려 유민을 통합해 가는 과정에 있었고, 한편으로 武周 시기의 당은 국내에 유민을 껴안고 군사와 대외전쟁에 그들을 동원하고 있었다. 위협이 되는 유민이 존재하는 동안 양국은 가까워지기 어려웠던 것이다.

700년대에 이르러 그러한 상황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 시기에 재당 백제·고구려 유민의 양태에 변화가 일어났다. 유민은 입당 제1세대에서 제2세대로 바뀐 것이다. 제2세대 이후는 당으로의 동화가 진행되고 당 국내에서 입신출세를 하려고 하였다. 물론 현종 개원 연간까지 당은 신라와 발해에 대한 견제를 위해 유민을 이용하였는데, 유민이 그러한 역할을 이행한 것은 이때까지였다. 제2세대 이후의 재당 유민들은 고국·고지와 관계가 희박해지면서 신라에 대한 견제의 요소도 없어져 갔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세대교체에 의한 변화는 신라 국내에서도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하여 700년대에 이르러 양국 사이에 유민의 잠재적 위협은 소멸되고 양국관계는 회복되어 갔다.

680년대 이후 신라의 북방진출, 당의 정국변화, 거란의 반란과 발해 건국 등의 동북정세가 양국의 관계변화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은 이미 지적되었다.⁴⁾ 이 책에서 논했듯이 유민의 동향을 하나의 축으로 7세기 후반에서 8세기 전반에 걸쳐 양국의 관계가 바뀌고 있었다. 신라의 입장에서든 당의 입장에서든 유민의 처리는 절실한 정치적 과제였고 그러한 과제가 양국의 관계를 규정하였다고 보인다.

이렇게 정리하면 신라와 당의 관계에 백제·고구려 유민이 깊이 연계되었고 양국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존재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라는 새로 획득한 백제·고구려의 고지에 유민을 꺼안게 되었고 그들을 통합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친당적 유민도 존재하였고 신라가 우세한 입장을 견지할 수 없으면 바로 백제·고구려 유민이 이반할 가능성이 있었다. 유민의 실태가 명확히 밝혀짐으로써 당시 신라가 얼마나 곤란한 과제에 마주하였는가를 이해할 수 있다. 문무왕·신문왕의 집권정책에 의해 통일신라의 체제는 정비되었다.⁵⁾ 그러한 와중에

4) 古畑徹, 「七世紀末から八世紀初にかけての新羅・唐關係」.

서도 유민에 대한 정책은 당과의 관계악화와 유민의 이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절실한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여기서 유민의 통합 방식에 깊이 고뇌한 신라의 모습이 보인다.

신라는 675년에 다시 책봉된 뒤 표면적으로는 당에 순종하는 태도를 취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는 유민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과제를 안고 당에 대해 충돌 혹은 접근하는 전략을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대당외교 방식과 유민 통합의 과정은 무열왕의 왕통이 이어지는 중대 신라왕권의 성격을 시사한다. 당의 책봉에 의해 황제로부터 승인된 '신라왕'으로서만이 아니라 유민을 통합하고 삼한을 통일하고 나아가 당에 대항할 수 있는 존재인 신라왕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중대 왕권의 성격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라는 당의 책봉을 받으면서도 '朕'이나 '勅' 등 황제를 모방한 용어를 사용하였다. 중국왕조에게는 황제의 신라로서, 국내에서는 황제와 같이 행동하였던 것이다.

II. 유민의 流動化와 재편성

이제 관점을 바꾸어 신라의 삼국통일을 동아시아의 틀에서 정리해 보자. 유민의 존재를 주목하면 신라의 삼국통일은 동아시아에 유동성을 낳았던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된다. 이 책에서 살펴본 대로 신라에 의한 삼국 통합과정에서 발생한 유민은 고지를 떠나 마치 디아스포라와 같이 동아시아 각지에 흩어졌다. 그들은 속해 있던 백제·고구려라는 왕조가 붕괴함으로써 귀속이 유동적으로 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또 그 귀속의 유동

5) 李成市, 「新羅文武·神文王代の集權政策と骨品制」, 『日本史研究』 500, 2004.

화는 질서의 유동화를 의미하기도 하였다. 사실 백제고지와 고구려고지에 서는 유민의 봉기 등 질서의 혼란이 나타났다.

당은 응진도독부와 안동도호부를 설치하고 왕족을 도독에 기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또 신라는 안승의 고구려국을 설치하는 것 등으로 유동화한 유민을 새로운 질서에 재편성하려고 하였다. 나당전쟁은 이러한 혼란과 그것을 수습하려고 하는 흐름 속에서 발생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7세기 후반 한반도에서는 유민의 유동화와 그 再編成이 큰 과제였다.

물론 유민의 유동화와 재편성은 한반도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과제였다. 거듭하여 서술하였듯이 당에서 유민은 군인으로 활용되었고 때로 왕족은 '內臣의 番'으로 대우받으며 관리되었다.⁶⁾ 마침내 당에 정착하여 세대가 바뀌면 唐人으로 동화되어 갔다. 또 신라와 당 이외에 유민을 많이 받아들인 것이 왜(일본)이다. 소위 渡來人の 일부를 말한다. 유민인 망명왕족은 '고려왕' '백제왕'이라는 성이 수여되어 일본 왕권이 백제·고구려 왕권을 거두어들이는 상징적 존재가 되고⁷⁾ 그 외의 유민도 울령국가 건설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한다.⁸⁾ 일본의 왕권도 유민 즉 귀족이 유동화한 백제인·고구려인을 자신의 질서 속에 재편성하였던 것이다.

한편 이러한 왕조에 재편성되지 않았던 유민도 존재하였다. 현재의 중

6) [역자주] 우에다 기헤이나리치카, 「內臣之番」으로서의 百濟·高句麗遺民 - 武周 시기부터 玄宗 開元期에 이르기까지 유민 양상과 그 변화, 『고구려발해연구』 64, 2019, 232쪽, 249~253쪽.

7) '王' 성의 연구사에 관해서는 田中史生, 「王」姓賜與と日本古代國家, 『日本古代國家の民族支配と渡來人』, 校倉書房, 1997 참조.

8) 일본으로 이주한 유민 및 '도래인'이 수행한 역할에 대해서는 關晃, 『古代の歸化人』(『關晃著作集』 3, 吉川弘文館, 1996); 丸山裕美子, 『歸化人と古代國家·文化の形成』, 『岩波講座 日本歷史』 第2卷, 古代2, 岩波書店, 2014; 田中史生, 「ヒト・モノ・文化の移動をどう捉えるか - 移動史の主體と空間」, 『日本古代交流史入門』, 勉誠出版, 2017 등 참조.

국 동북부에서 한반도 북부에 걸친 고구려고지에서 유동화한 고구려 유민의 재편성은 당과 신라도 충분히 행할 수 없었다. 고구려 유민의 붕괴 이래 당은 안동도호부를 평양에서 요동으로 후퇴시키고 698년에는 일시 폐지하였다. 신라도 평양을 포함한 대동강 이북 지역으로의 진출은 늦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광대한 고구려고지 유민의 재편성은 진전되지 않았던 것이다. 변화는 696년 李盡忠 등이 이끈 거란인이 당에 대해 봉기했을 때 일어났다. 이에 이어서 고구려 유민인 대조영이 발해를 건국하였다. 발해는 현재 중국 동북부의 고구려고지를 영유하고 나아가 고구려의 후계국가를 자칭할 정도였다. 그러면서 재편성되지 않았던 고구려 유민이 발해국 아래로 통합되어 갔다.

발해의 건국으로 유동적 질서가 재편성되고 동아시아 정세가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중대 신라는 고구려 유민까지 포함한 유민을 통합함으로써 성립된 왕권이다. 그런 까닭에 고구려 계승을 표방하고 또 실제로 고구려 유민을 구성원의 기초로 하는 발해는 신라의 입장에서 위협적이었을 것이다. 당의 입장에서도 발해의 성립은 동북정책에 변화를 준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으로 당의 경우 유민의 세대교체가 진행됨에 따라 정착·동화가 이루어지고 고구려고지와와의 관련도 희박해져 왔다. 그렇다면 유민을 축으로 한 대립은 그때까지의 신라와 당의 관계에서보다도 신라와 발해의 관계 쪽이 더 절실하게 된다. 신라와 당의 관계가 700년대 이후 회복되는 배경에는 발해의 성립이 있었다는 것이 지적되어 왔지만, 시점을 바꾸면 유민 재편성의 문제가 형식을 바꾼 것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7세기 후반의 나당전쟁에서부터 발해의 성립, 그리고 8세기 전반의 개원 연간에 이르기까지의 동아시아 정세는 유민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한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에서 발생한 백제·고구려 유민은 동아시아 각지로 유동하고 또 그곳에서 재편되었다. 그들 유민은 관료·군인·기술자 혹은 농민이었다. 지식과 기술을 가진 인재의 확산과 재정착이 한반

도를 비롯한 동아시아 각지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 점에서 신라의 삼국통일을 별도의 측면에서 평가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유민은 당에 있어서는 대외전쟁에 없어서는 안 될 군사력을 지탱하고 일본에서는 울령국가형성에 공헌하였다. 발해는 애초 유민에 의해 건국되었다. 그리고 신라에서는 보다 직접적으로 물리적인 영토와 유민이 그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다. 이렇게 정리하면 7세기 후반에서 8세기 전반까지의 동아시아는 유통화한 유민을 재편성하는 시대였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신라의 국가통합은 한국사의 틀에서만 파악하려고 하면 중대 왕권의 성립으로 평가할 수 있음과 동시에 대부분의 고구려 유민과 고지를 통합하지 못했다고 하는 ‘미완의 삼국통일’이라는 평가로 귀결된다. 하지만 거기에 통합되지 않은 유민은 당·왜(일본)·발해에 통합되어 각각의 왕권 성립과 체제유지에 크게 공헌하였다. 어떤 의미에서 계속되는 8세기 동아시아의 고대국가체제가 신라의 통일에 의해 생겨났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신라에 의한 삼국통일의 동아시아적 의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그들 유민을 ‘디아스포라’로 파악하는 것에 의해 동아시아 나라들의 동향이 보이게 되었다. 지금까지 한반도 출신의 이주자 혹은 백제·고구려의 망국민에 대해서는 그 용어로서 ‘입당○○인’ ‘移民’ ‘移住民’이라고 하는 이동에 중점을 둔 개념이 사용되었다.⁹⁾ 이 개념은 백제·고구려만이 아니라 신라도 포함한 한반도 출신의 이주자를 포함할 수 있고 시간축도 넓게 잡아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한반도에 잔류하고 이동하

9) 姜清波, 『入唐三韓人研究』, 暨南大學出版社, 2010; 苗威, 『高句麗移民研究』, 吉林大學出版社, 2011; 拜根興, 『唐代高麗百濟移民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2(바이건싱 저, 구난희·김진광 역, 『당으로 간 고구려·백제인』,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9); 葛繼勇 著, 王博 譯, 「古代中韓關係史研究の新たな視角 - 拜根興『唐代高麗百濟移民研究』によせて, 『史滴』 34, 2012 등.

지 않은 백제·고구려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 왜(일본)으로 건너간 백제·고구려인은 ‘도래인’ ‘귀화인’이라는 말로 일본고대사 연구에서 언급되어 왔는데, 일본열도로 이주한 자에 한정된 개념이다.

한편 ‘유민’이라고 하는 말도 만능은 아니다. 망국민이라는 의미로 사용하면 신라에 잔류한 사람들, 재당 백제·고구려 유민, 일본으로 간 도래인도 포괄할 수 있는 넓은 개념이 된다. 하지만 기간이 한정적이고 멸망 이전의 이주민과 뒤에 당으로 이주한 신라인 등을 포함할 수 없으므로 한반도 출신의 이주민을 완전히 망라할 수 없다.

하지만 이 책에서 다시 정의한 대로 유민을 디아스포라 이른바 백제·고구려 디아스포라로서 파악함으로써 7세기 후반의 특정 시기에 발생한 인구이동을 상대화하여 분석할 수 있게 된다. 유민이 7세기 후반이라는 한정적 시간의 산물이기 때문에 신라의 삼국통일이라는 특정한 역사현상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개념인 것이다. 실제로 이 책과 같이 유민의 동향을 밝힘으로써 신라·당 관계, 신라에 의한 삼국통일의 의의, 7세기 후반부터 8세기 전반까지의 동아시아 정세에 대해 새로운 측면을 찾아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유민이라는 인구이동에 대한 연구는 당대 묘지 사료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정비됨에 따라 점차 시작되었다. 이 시도는 일본사에서의 도래인, 중국사에서의 蕃將과 移民의 개념을 상대화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나아가서는 이 종장에서 언급해 온 대로 당과 일본의 왕권 형태도 상대화하고 동아시아에서 신라의 존재감을 재확인하게 되었다. 이 책에서는 중국대륙과 한반도에 거주한 유민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 때문에 일본과 그 외 지역으로 이주한 유민이나 역으로 한반도로 들어간 唐人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못하였다. 차후에 그러한 이동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고대 동아시아라고 하는 공간과 그 실상, 그리고 한반도의 역사적 위치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싶다.